

<2011년 1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>

1. 사람이 자기 지능으로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일을 보거나 겪게 되면 “기적이다!” 한다.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“표적이다. 기적이다.” 하지 않는다.
2. 하나님과 주님은 평소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신다. 어떤 물건이 책상에 있는데도 찾을 때는 안 보이게 하시고, 안 찾을 때는 보이게 하신다. 눈을 가려 못 보게 하신 것이다. 하나님도 주님도 이 같이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신다. 그러면서 “너는 내가 찾을 때는 안 보이고, 안 찾을 때는 보이니 나와 마음을 가까이하여라.” 하신다.
3. 하나님도 주님도 생활 속에 교육하신다.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생각한다. 하나님도 주님도 작고 큰 것을 생활 가운데 보여 주시며 교육하심을 알아라.
4. 평소의 것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는 주님은 능력자이시다. 주님은 정신으로 조정하신다.